

‘아름답고 품위있는 표지’의 어제와 오늘

‘책의 껍데기’에서 ‘표지에술’로, 단순 책소개에서 광고홍수시대로

해방 이후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 숨겨진 변화양상은 ‘책문화’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로 알 수 있는 양적 증가도 팔목할 만했지만 숫자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변화 또한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외적인 부분에서 이젠 책문화 내부에 가장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표지디자인과 광고이다. 출판 초기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던 이것들은 사회가 급속한 시각화·정보화 분위기로 진전됨에 따라 오히려 책의 내용을 위협한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방 직후부터 80년대까지의 표지 변천

해방 직후 책의 장정은 그저 책의 내용을 보호하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내지보다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양을 갖춘 축에 들었다. 표지에는 알아보기 쉽게 책 제목과 저자 및 출판사 이름만 큼지 막하게 써 놓으면 그만이었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메시지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책은 소수의 전유물이었고 한정판으로 찍어 놓은 책이 모자라서 못팔 정도였으니 ‘책의 모양’은 책의 선택에 있어 별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다.

그런 상황은 6.25전쟁이라는 대혼란기를 거치면서 크게 나아지지 못하다 50년대 후반 들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맹률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자연히 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시대조류와 맞는 미술작품들을 책의 표지에 넣거나 책의 내용과 상응하는 도안을 그려넣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서적의 장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식미 등을 고려한 표지는 요원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50년대 후반 표지의 가장 큰 변화는 합지(合紙, pasted board)를 사용한 두꺼운 표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이 발전해 ‘슬립케이스’라고 부르는, 책을 끼워넣는 판지(板紙)로 만든 케이스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60년대 초반에 불어온 전집물 붐

을 맞아 ‘호화양장본’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표지에 비닐을 입히고 금박으로 제목을 넣는 이런 경향은 “책값만 비싸게 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60년대 초반 표지디자인은 여전히 미학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화가들에게 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표지그림을 부탁하는 경향이 늘기 시작한 것이었다.

6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출판업자들은 서점에서 고객들의 눈을 끄는, 애서가의 책꽂이에서 손색없는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독자들이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품위있는 표지’를 만드는 데 골몰하기 시작했다. 《66 출판연감》에는 종전과는 다른 책의 장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념변화를 보여주는, 책의 표지를 여자의 얼굴에 비유한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책의 표지는 얼굴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얼굴이 우선 곱고 보아야 할 일이다. 얼굴이 신통치 않고서야 제아무리 마음씨가 착하고 교양이 있다손치더라도 여자로서선 우선 낙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책의 장정이 신통치 않고서는 독자의 눈을 끌기는 어렵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겼다 하더라도 사 줄 사람이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대서야 우선 상품으로는 낙제다.”

그러나 전문 표지디자이너는 아직 없었고 출판사 사장이나 편집자들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게 보통이었다.

70년대로 넘어가기 직전 표지문화에 새로운 장을 여는 기폭제가 된 것은 원색 인쇄문화의 혁신이었다. 활판인쇄가 주종이던 표지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점점 깔끔하고 화려하게 변모되기 시작했고, 표지에 들어가는 문자도 사진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흔히 표지용지로 애용되던, 황산용액에 담가서 만들어 내구성이 강한 유산지도 원색커버의 등장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실용성이 우선이었던 출판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표지디자인도 상업주의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 급격한 가시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표지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목의 크기, 글자꼴, 지면에서의 배치, 사용하는 색깔, 책 내용과의 부합성 등 전체적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표지 디자인의 변천된 모습.

인 사항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표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전문 디자이너에게 제공하고 디자이너가 표지를 창작하는 전문화된 제작방법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었다. 편집자들이 마땅한 그림이나 도안을 잡지 등에서 찾아낸 다음 그것을 오려서 배치하는 짜깁기 방식이 보편화된 방법이었다. 제목 글씨는 큼지막한 ‘금적자’가 유행했다. 당시 표지에 대한 남다른 감각으로 ‘표지전문가’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중환, 백승철, 권영빈, 양문길씨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미술전공자들은 아니었다.

70년대 말에 와서야 출판에 있어서의 편집과 디자인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정병규씨 등 전문 표지디자이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표지는 스스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출판인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표지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전문화된 근본적인 계기는 80년대 컬러 텔레비전의 등장과 컴퓨터 문화의 확산 때문이었다. 영상문화에 단련된 세대들이 모양 좋은 책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무한 경쟁으로 돌입하기 시작한 출판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표지디자인 전쟁에 뛰어들었다.

자연스럽게 자본이 집중되었고 표지디자인은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대전환

80년대 초에는 인쇄면에 비닐을 압착시키는 라미네이팅 기법이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표지에 비닐커버를 씌우는 이제

까지의 방법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아트리지가 주종을 이루던 표지용지도 표지에 들을머니가 있는 엠보싱지나, 희고 부드러운 스노우 화이트지, 표면에 작은 모랫밭무늬가 있는 샌드브라이트지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한 컴퓨터 산업의 발전으로 표지디자인의 주종을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 표지 전문 디자이너들과 디자인회사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웬만한 출판사에는 디자인 전문 직원을 채용하는 게 일반화되었다.

표지 디자인에 대한 출판계 내부의 인식변화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가 바로 1989년 교보문고에서 제정 시행한 ‘북 디자인상’ 제도이다. 제1회 ‘북 디자인상’ 공모전에서는 《한국의 탈》, 《한국의 탈춤》(행림출판사)을 제작한 표지 디자이너 정병규씨가 대상을 비롯, 아이디어상, 장려상 등을 휩쓸었다.

90년대 출판된 책 중 전문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책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북 디자이너의 수는 2백 명을 넘어섰고 책표지는 이제 ‘책의 껍데기’에서 독자적인 ‘표지 미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잉크만 묻혀도 팔리는 시대

해방 직후 우리나라 출판 현실은 당시 출판인들의 증언과 사료 등으로 미루어 보아 ‘종이에 잉크만 묻혀도 팔리는 시대’였다. 굳이 책이 나왔다고 알리지 않아도 책은 날개 돋친듯 팔렸고 따라서 ‘책광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의
우리 책문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양적인 성장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장정, 광고 등
내용외적인 부분의 변화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변모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소간의 안정을 찾기 시작한 5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서서히 그 틀을 만들어가면서 출판사가 다수 생겨나고 출판사들끼리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출판사는 자사에서 출판한 책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신문에 책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잡지에서의 책광고도 크게 늘기 시작했다. 광고비가 출판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본격적인 책의 광고전이 시작된 것은 60년대 초반부터였다. 출판광고가 전근대적인 선전형태에서 현대적인 선전양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1964년 출판광고 현황을 보면 종전과는 뚜렷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신문광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총 출판량인 5963종 가운데 만화와 참고서를 제외한 1909종의 반수 정도인 860종이 신문을 선전수단으로 사용했고, 당시로는 엄청난 총 54만 원이라는 돈을 출판사들이 신문광고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지면으로 따져 볼 때 이중 50% 이상의 책이 5단 이상의 크기로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과열양상까지 보여주었다.

TV를 통한 광고형태 역시 크게 변모해 64년 초까지만 해도 기증본 몇권이던 방송해 주던 TV광고가 그해 7월부터는 '전과료'라는 명목으로 40초당 1200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개월 후인 11월에는 '전과료'가 무려 3배 정도 인상되어 당시 출판사들이 TV 광고효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급

진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TV 보급대수가 적었던 당시 광고매체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슬라이드 광고'라고 불리던 극장광고 역시 크게 증가해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려 1230만 원의 광고비를 출판사들이 64년 한해 동안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66년을 정점으로 60년대 후반부터 책광고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66년 동아, 조선 등을 기준으로 5단에 80원하던 광고비가 1년 사이에 140원으로 경충 댄 것이 그 원인이었다. 불황과 원자재 값의 인상까지 겹쳐 출판사들의 광고가 위축된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면서 출판사의 수와 출판물량이 급증하면서 출판산업은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고 70년대 내내 출판광고는 그 물량과 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한다. 독자들이 광고를 통해 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두드러지게 증가해 1980년 시행된 한독서실태조사에선 응답자의 41%가 광고를 보고 책을 선택한다고 대답했을 정도였다. 전반적인 경제활동 침체니 출판계 불황이니 하는 말들이 무색하게 출판사의 광고비 지출은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출판업의 부가가치나 문화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광고비의 과다한 지출은 출판업의 내적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출판광고의 증가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80년대 벽두에 집계된 출판사의 광고비 지출 현황은 총 5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일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00여 개의 출판사가 신문에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후로도 출판광고는 점점 비대해져 가장 최근인 94년 한해 동안 출판사들이 지출한 광고비는 무려 2311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년인 93년보다 48.7% 증가한 양이며 업종별 광고 순위에서는 식품음료, 서비스오락에 이어 3위를 점하는 액수이다.

—허연 기자

“가을철에 읽을만한”

理工圖書

경지사
과학 기술도서

서울麻浦區 西橋洞 375-13
TEL : (02)335-1985
FAX : (02)335-1986

도서명	저자명	규격 및 면수	정가
기초 초전도 물리학	로스 인네스 외 김영철 외 역	A5신, 260면	10,000원
海洋鑛物資源	호리베요시오 외 박용안 역	A5신, 150면	5,500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후지시게 노부나가 저 최형식 역	A5신, 182면	7,000원
레이저와 영상	다쓰오카 시즈오 저 조재철 외 역	A5신, 192면	7,000원
뉴 세라믹스	반노히사오 저 김재영 역	A5신, 208면	7,000원
시퀀스 制御回路의 設計演習	정해상	A5신, 412면	12,000원
광파이버 光學材料	조재철	B6판, 164면	3,800원
尖端産業技術事典	일본 통산산업성 편 최현 외 역	A5신, 584면	15,000원
設計者를 위한 CAD/CAM	모찌즈기다카시 저 백난선 역	A5신, 176면	5,000원
계장공사의 계획과 시공	고바야시아끼오 저 정해상 역	A5신, 298면	7,000원
安全側面의 人間工學	김원갑	A5신, 302면	8,000원
기초 전기 전자실험	홍철호 외	B5판, 310면	9,500원
신편 物理電子工學	김춘성 외	A5신, 264면	7,500원
制御工學	김춘성	A5신, 328면	9,000원
電氣機器設計	다께우찌슈따로 저 정해상 역	A5신, 172면	7,000원
汎用 高分子材料	하세가와마시키 이종경 역	A5신, 220면	5,000원
전기법규·기술기준	정해상 편	A5신, 586면	12,000원
기술혁신의 경제학	R. 콕스 외 저 권원기 역	A5신, 372면	7,500원
최신 하이테크사전	일본 통산산업성 편	A5신, 198면	7,000원
기초 전기공학	박상희 외	A5신, 376면	8,500원
電氣用語 大辭典	전기용어편찬위원회	B6판, 1102면	18,000원
최신 전기용어사전	전기용어편찬위원회	A6판, 836면	9,000원
入門 自動制御	사와이도 센사부로 정해상 역	A5신, 260면	5,000원
背信의 科學者들	W.브로드 외 저 박익수 역	A5신, 272면	5,500원
강대국의 기술패권	야꾸시지 타이즈 저 강박광 역	A5신, 256면	6,000원
박익수 과학평론집 풍요의 꿈과 현실	박익수	A5신, 224면	4,500원
全世界 規格事典	편집부 편	A5신, 260면	18,000원
중·소형 소각로	김향원	B5판, 250면	근간